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선녀와 나무꾼」을 이용한 표현교육 중심으로

양지선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강사, 한국어학 전공
calliyang@hanmail.net

- I. 서론
- II. 한국어 교재에서의 「선녀와 나무꾼」 문학교육 현황
- III. 「선녀와 나무꾼」을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
- IV. 결론

이 논문은 2009년 9월 23일 경희대학교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I. 서론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교육의 방향이 학습자 중심으로 지향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문화교육에서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서로의 가치관과 특정 문화에 대해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 및 태도를 정리하여 학습자 문화와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변화라고 본다. 일상 대화를 비교적 수월하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논리적인 소개와 한국 문화에 대한 비교 학습은 반드시 필요한 요구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표현영역인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문법과 어휘, 시사와 관련된 교육을 넘어서 한 나라의 사회제도나 정신문화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폭 넓은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습자들이 한국에 살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은 의사소통 기술과 가치관에 있다고 하는데,¹⁾ 이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차이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 알아야 목표언어와 문화를 원만하고 흥미롭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고전 문학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전래동화를 활용할 경우 비슷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분포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자국 문화와 함께 비교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와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혼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자녀들과 이주여성을 위해 한국의 문화에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논문을 본다면, 김영주(2008)는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다문화 및 재외동포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선희·유승금(2008)은 전래동화가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어 왔고, 동일한 내용의 동화들이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어휘, 문법, 문화적인 요소를 교육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혼이민

1) 문화간 의사소통에서의 갈등의 요인을 의사소통 기술과 가치관으로 정리하고 있다. 의사소통 기술은 언어(대화스타일), 비언어(얼굴표정, 제스처, 침묵 등)의 차이에 의한 갈등을 말하며 가치관에서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으로 인한 개인주의, 집단주의, 남성적·여성적 가치, 고정관념 등이 갈등의 요인에 해당된다고 한다. 김정은,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갈등 양상 분석」, 『한국어교육』 제19권 제2호(2008), 5쪽.

자를 위한 한국어와 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구성원과 교재 선택의 방법,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최권진(2006)은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교의 중급 학습자에게 전래동화를 이용한 수업의 모델과 교육 모형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래동화가 문화교육과 함께 언어의 모든 기능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이상적인 수업 자료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배원룡(1993)은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145편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남녀노소 차별 없이 폭넓게 전승되고 있고, 다양한 유형구조와 변이를 일으키며 오늘날에도 전승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 「선녀와 나무꾼」의 문학적 가치를 밝혀주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래동화는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면서 민족과 함께 공존해 왔고, 대부분의 나라에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문화교육을 한다면 흥미롭고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시된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하거나 토론하기, 연극하기, 대본 만들기 등의 문화 활동을 활용한 전래동화의 학습 방법에서 좀 더 나아가 이야기 속에서 한국의 가치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새로운 방법의 문화교육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선녀와 나무꾼」을 선정하여²⁾ 언어학습과 문화교육의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전래동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선녀와 나무꾼」의 전체 줄거리에서 문화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어 중·고급 학습자의 문화교육 단계에 알맞도록 표현교육 영역인 쓰기와 말하기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질문유형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어 교재에서의 「선녀와 나무꾼」 문화교육 현황

한국어교육에서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목적의

2) 선정 이유: 「선녀와 나무꾼」은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를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는 민담으로 비교학습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곡녀전설, 일본에서는 우의전설, 서양에서는 백조처녀(Swan maiden)와 비슷하다.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나는 고부갈등과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여성연구논총』 제21집(2006), 55쪽.

교재와 말하기, 쓰기 교재 중에서 「선녀와 나무꾼」이 제시되어 있는 교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홍혜준(2004)은 카터와 롱(Carter & Long)이 제시한 문학교육의 모형을 전래동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의 방안을 세 가지 모형에 맞추어 12가지의 활동방안 유형을 제시하였는데,³⁾ 본 논문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선녀와 나무꾼」의 질문유형을 홍혜준이 제시한 12가지 활동방안과 황인교(2001)가 정리한 문학교육의 모델에

표1-경희대학교 『한국어고급 1』 「선녀와 나무꾼」 표현영역 질문 비교

표현영역	질문유형	문학교육유형
말하기	1. 이야기의 주인공 또는 주인공과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대화를 만들어봅시다.	문화모형
	2. 남녀 간의 사랑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문화모형
	3. 선녀를 만나기 전에 나무꾼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선녀를 만난 후와 비교하여 말해봅시다.	-
	4. 노루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나무꾼이 이 금기를 지켰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문화모형
	5. 다음은 「선녀와 나무꾼」의 뒷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결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성장
	6. 여러분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위의 내용과 비교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언어모형
	7. 「선녀와 나무꾼」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꾸며 봅시다. 인물의 성격을 분석한 후, 한 장면을 선택하여 만들어보십시오. 1) 인물의 성격 분석하기(나무꾼, 선녀, 어머니, 노루)	개인성장 문화모형
	8.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각색해 봅시다. 1) 반 친구들 중 나무꾼을 한 명 정하십시오. 2) 이 사람이 나무꾼이 되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위의 장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역할극을 다시 만들어보십시오. 3) 새로 만든 역할극과 본래 이야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 개인성장 문화모형

3) 홍혜준,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제21집(2004), 545-548쪽. 카터와 롱(Ronald. A. Carter & Michael N.)이 제시한 문학교육의 세 가지 모형인 문화모형, 언어모형, 개인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전래동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의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문화 모형: 인터뷰하기,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하기, 학습자가 함께 참여하기
- 언어 모형: 스토리텔링하기, 학습자가 작품을 낭독하기, 빈칸 배우기, 작품을 학습한 후 다른 장르로 써보기, 문장을 문맥에 맞게 재배열하기, 그림 보고 이야기 구성하기
- 개인 성장 모형: 개인적 반응 이끌어내기, 작품의 결말 재구성하기, 소그룹별로 토론하기

맞추어⁴⁾ 문학교육의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한국어 교재에서 「선녀와 나무꾼」을 활용한 문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시된 질문유

표2-『서강한국어 4A』 「선녀와 나무꾼」 표현영역 질문 비교

표현 영역	질문 유형	문학교육유형
쓰기	1. 그림을 보면서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쓰세요.	언어모형
	2. 「선녀와 나무꾼」 내용을 이용해서 연극 대본을 만들어 보세요.	언어모형
	3. 현대판으로 만든 「선녀와 나무꾼」을 써 보세요.	언어모형
말하기	1. 묻고 대답하십시오. 1) 나무꾼과 사슴은 어떻게 만났어요? 2) 나무꾼은 어떻게 선녀와 결혼을 했어요? 3) 사슴은 나무꾼에게 무엇을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4) 나무꾼은 왜 아내에게 날개 옷을 보여 주었어요? 5) 날개 옷을 본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
	2. 그림을 보면서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하세요.	언어모형
	3. 만들어진 연극 대본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대사를 연습하세요. 그리고 연극을 해 보세요	언어모형
	4.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개인성장 문화모형
	5. 묻고 대답하십시오. 1) <뒷이야기1>에서 나무꾼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2) <뒷이야기2>에서 선녀는 왜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돌아왔어요? 3) <뒷이야기3>에서 선녀는 애 나무꾼을 위로하려고 내려왔어요? 4) <뒷이야기4>에서 사슴이 말해 준 다른 비밀 하나는 뭐예요? 5) 여러분이 선녀라면(나무꾼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자기 생각을 말해 보세요.)	- - - - 개인성장
	6. 다음 단어와 표현을 이용해서 읽은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언어모형
	7. 친구들과 함께 「선녀와 나무꾼」을 현대판 이야기로 바꾸세요.	개인성장 문화모형
	8.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를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세요.	-

4) 학습자의 한국어학습, 한국문화학습, 개인 성장의 세 가지 요구는 외국어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문학교육의 세 모델과 일치한다고 보았으며, 라저(Larzer), 카터와 롱(Carter & Long)이 제시한 모델을 정리하여 언어모델은 언어학습 자료로서의 문학텍스트와 문학적 또는 문화다움을 구현하는 특별한 언어사용 텍스트로서의 문학을 교수하는 모델이며, 문화모델은 텍스트 외적인 맥락 정보를 교수하는 모델이고, 개인 성장 모델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문학을 경험하게 하는 교수모델이라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학습, 한국문화학습, 개인 성장을 위한 문학 수업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황인교,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의 가능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호(2001), 428-430쪽.

형을 통해 살펴보겠다.⁵⁾

경희대학교 교재에서는 『한국어 고급 1』에 「선녀와 나무꾼」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표현영역에서 제시된 질문을 분석해 본 결과, 문화모형과 언어, 개인성장의 모형이 골고루 잘 분포되어 「선녀와 나무꾼」을 활용한 교육이 문학교육모형에 맞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개인성장 모형과 문화모형의 구분이 모호하여 한 질문에 두 모형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골고루 문학교육의 세 가지 유형에 맞게 질문유형이 잘 배분되어 있었다.

서강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경우, 쓰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문학교육의 유형이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었다. 쓰기 영역에서는 언어모형 중심의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말하기 영역에서는 언어모형과 개인성장모형이 문화모형과 함께 질문에 제시되어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의 분석표를 보면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학교육이 언어모형과 주로 개인성장모형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유형은 구분이 모호하여 개인성장모형과 함께 제시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3 『말하기 쉬운 한국어 9』 「선녀와 나무꾼」 표현영역 질문 비교

표현영역	질문유형	문학교육유형
말하기	1. 한국의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이야기의 뒷부분을 꾸며 봅시다.	개인성장 문화모형
	2. 여러분의 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은 이야기,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은 이야기 등).	언어모형
	3. 앞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대화로 만들어봅시다. 조별로 나누어 [1]-[3]처럼 [4]-[10]내용을 연극의 대사로 만들어봅시다.	언어모형
	4. 배역을 정하고 연극을 만들어봅시다.	언어모형

성균관대학교의 『말하기 9』 교재는 「선녀와 나무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활용한 말하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작품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이지만 개인성장과 언어모형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고 문화모형은 말하기를 활용한 문학교육에서 개인성장 모형과 함께 제시되고 있었다.

5) 문학교육 유형의 분류시, 홍혜준이 제시한 12가지 활동방안의 기준에 모호한 것은 황인교(2001)가 정리한 문학교육의 모델에 맞추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힌다.

성균관대학교 교재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을 활용한 말하기가 주로 언어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선녀와 나무꾼」을 활용한 교육이 주로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단계 학습은 주로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고급 단계에서부터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말하기와 쓰기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은 언어, 개인성장, 문화모형이 모두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질문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개인성장과 문화모형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개인성장모형이 확장된 문화모형의 범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로 언어모형이 문학교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표현교육에서 여러 가지 문화교육을 위한 모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질문유형은 언어모형이나 문화활동(역할극) 등에 한정된 개인성장과 문화모형교육으로 교수자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느껴졌다. 한국인의 가치관, 세계관 등은 문학작품을 통해 가르칠 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학습자의 정체성 확립과 서로 다른 문화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문화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성희(1999)는 설화를 활용하여 어떻게 한국 문화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⁶⁾ 문화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역할놀이 및 비슷한 주제, 모티브를 가진 자기 나라 이야기하기 정도로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특정방안만으로는 문화교육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해당 작품 안에서 문화와 연계된 질문유형을 여러 가지 제시하여 문화모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문화교육 모델인 역할극은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기존의 문학작품을 여러 가지 변형된 역할극(현대

6) 설화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각자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자신의 입장 설명하기 ②법정 상황 연출하기 ③작품과 다른 결말의 내용을 창작해보기 ④작품의 결말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창작해 보기 ⑤역할놀이 ⑥현대를 배경으로 새롭게 구성해 보기 ⑦작품의 내용 낭독하기 ⑧연극/TV대본으로 구성하기 ⑨감상문 쓰기 ⑩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⑪비슷한 주제, 모티브를 가진 자기 나라 이야기하기 ⑫빈칸 채우기.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10권 제2호(1999), 267-268쪽.

판, 상황을 정해서 자유롭게 역할극 만들기 등)을 통해 학습자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를 학습자끼리 직접 경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하지만 역할극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문화 비교는 한정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같은 나라에서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를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교육을 하는 데 있어 학습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판단하며 자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타국의 문화까지 확장하여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언어모형이나 문화활동(역할극, 대본만들기 등)에 한정된 개인성장, 문화모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문화교육을 위해 「선녀와 나무꾼」에서 다양한 소재를 찾아내어 새로운 질문유형을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 혼합한 표현영역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 「선녀와 나무꾼」을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

상대방과 상황에 맞는 대화능력과 고도의 독해능력은 그 언어가 속한 사회·문화적인 내용도 모두 이해할 때 비로소 습득되는 것이라고 한다.⁷⁾ 따라서 문화교육은 언어 학습자에게 언어능력 신장의 필수조건이고 진정한 의미의 언어통달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언어 속에 담겨 있는 함축적 의미와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적 배경까지 이해하는 능력을 한국어 학습자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래동화는 표면적으로는 문학작품이지만 상징문화, 일상문화가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학습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으면서 흥미롭게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선녀와 나무꾼」은 여러 가지 유사한 이야기로 인해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 학습자는 자국의 이야기와 유사한 한국의 전래동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작품이라고

7) 박영순,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 제5권 제1호(1989), 49쪽.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의미론 교육도, 독해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며, '영수는 보리밥과 콩나물만을 먹고 자랐다'와 '철수는 불고기와 새우튀김만을 먹고 자랐다'라는 두 문장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서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볼 수 있다. 「선녀와 나무꾼」은 기본적으로 선녀가 아이들만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선녀 승천형’, 선녀가 승천한 후 나무꾼도 두레박을 타고 승천하여 행복하게 사는 ‘나무꾼 승천형’, 나무꾼이 천상계로 승천한 후 처갓집 식구가 내준 과제를 해결하여 행복하게 사는 ‘천상시련 극복형’, 승천하여 천상계에 살던 나무꾼이 어머니가 그리워 지상에 내려왔다가 금기를 어겨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수탉이 되었다는 ‘나무꾼 지상회기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선녀와 나무꾼」의 유형을 살펴보면, 서강대학교 교재에서는 ‘나무꾼 승천형’을 제시하였고, 경희대학교 교재는 ‘나무꾼 지상 회기형’을, 성균관대학교 교재에서는 ‘천상시련 극복형’과 ‘나무꾼 지상회기형’을 암시하는 이야기 뒷부분을 학습자가 추측해서 만들도록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 문화 습득과 이해, 학습자 모국과의 폭넓은 비교 문화를 위해 좀 더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나무꾼 지상회기형’을 선택하였다. ‘나무꾼 지상회기형’을 바탕으로 한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단락으로 구분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A.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 B.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도와 목숨을 구해주었다.
- C. 목숨을 건진 사슴은 보답으로 선녀를 아내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 D. 나무꾼은 셋째 선녀의 옷을 숨겼고 언니들은 막내를 두고 승천하였다.
- E.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과 결혼을 하였다.
- F. 사슴은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선녀 옷을 돌려주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하였다.
- G. 나무꾼은 선녀가 아이를 둘 낳았을 때 선녀 옷을 돌려주었다.
- H. 선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승천하고 나무꾼은 홀로 남아 슬피 울었다.
- I. 다시 사슴의 도움으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아내와 자식을 만났다.
- J.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다.
- K. 나무꾼이 지상에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선녀는 땅에 발이 닿으면 안 된다는 것과 인간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하며 천마를 구해주었다.

L. 나무꾼은 아내의 도움으로 천마를 타고 하강하여 어머니를 만났다.

M.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뜨거운 팔죽(호박죽)을 먹다가 말 등에 떨어뜨려 천마에서 떨어졌다.

N. 천마는 하늘로 올라가고 나무꾼 혼자 지상에 남았고 그 후에 나무꾼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와 자식들이 그리워 올라가 수탉이 되었다.

중급학습자를 중심으로 하여 「선녀와 나무꾼」을 활용한다면 하늘로 올라간 선녀와 아이들이 나무꾼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잘산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간단한 결말을 지닌 '나무꾼 승천형'에 해당하는 (A)-(J)까지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고급학습자를 위한다면 한국인의 가치관과 의식,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나무꾼 지상회기형'에 해당하는 (A)-(N)을 선택하여야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드러나는 '효'사상까지 이야기를 확대하여 문화교육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위의 이야기 구성에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표현교육에서 문화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유형을 언어, 문화, 개인성장모형에 맞추어 제시해 보겠다.

1. 숫자 '3' 에 대한 인식

「선녀와 나무꾼」에서 D, F를 보면 나무꾼이 옷을 숨긴 선녀는 셋째이며, 사슴이 권한 금기 내용도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선녀 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숫자 '3'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시했을까?

한국인은 '3'이라는 수를 특별히 길(吉)한 수로 생각한다. 짝수보다 홀수를 좋아하고, 동일한 홀수의 반복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⁸⁾ 또한 숫자 '3'이 하늘과 땅, 인간이 모여 온전함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완성의 의미와 조화와 안정의 원리로 인식되며, 많음과 풍요를 상징한다. 특히 '33'은 완벽한 수로 보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홀수가 겹치는 날을 명절로 생각하였다.⁹⁾

8) 수에 있어서는 짝수가 음, 홀수가 양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예로부터 양수를 길수로 여겼으며 홀수는 남성적, 강한 것을 의미하고 짝수는 여성적, 수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리영순, 『동물과 수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체계』(도서출판 훈민, 2006), 215쪽.

9) 음력 기준으로 1월 1일(설날), 3월 3일(삼짇날), 5월 5일(단오), 7월 7일(칠석), 9월 9일(중양절).

한국인이 홀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아보면,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에는 주로 3일장, 5일장, 7일장을 지낸다는 우리 민족의 상례(喪禮)와, 한국의 목조탑과 석탑을 봐도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 통일 신라의 석가탑, 다보탑이 모두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 등에서 홀수가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을 보면 문화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숫자가 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중국은 숫자 '8'을 선호하고 태국, 몽골의 경우 숫자 '9', 유럽의 경우 숫자 '7',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은 숫자 '3'이다. 이렇게 학습자들의 문화마다 선호하는 숫자가 다른지 그 의미와 왜 그러한 숫자를 선호하는지, 또한 기피하는 숫자까지 확장하여 비교하고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면 서로의 문화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되리라 본다.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소재로 한 질문유형을 간단히 구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예〉

1) 한국인들이 숫자 '3'을 좋아하는 것은 한국인의 민족적 성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숫자 '3'에 대한 예상을 한국인의 언어습관에서 찾아봅시다. (문화, 언어모형)

예) 가위, 바위, 보를 할 때 한국인은 삼 세 번을 한다.

‘애국가’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결혼식에서 주로 하는 만세 삼창.

2)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숫자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어떤 언어생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문화, 개인성장모형)

3) 한국은 숫자 '4'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은 한자어 '사(死)'가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 '4'와 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숫자 '4'를 기피하는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보거나 느낀 적이 있는지 서로 발표해 보고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숫자를 기피하고 왜 그런지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 봅시다. (문화, 개인성장모형)

예) 병원, 호텔 등에서 3층 다음에 4층이 없이 5층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4층을 알파벳 'F'로 표시하고 있다.

4) 지금까지 배운 속담이나 한국인과 생활하면서 숫자 '3'이 제시된 한국 속담을 들었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서 발표해 봅시다. (언어, 문화모형)

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경희대/고급2, 연세대/한국어4,5)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경희대/중급2)
 여자 셋이 모이면 부뚜막에 그릇이 깨진다. (연세대/한국어6)

2. 민속적 금기

금기(禁忌)는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전승되면서 그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려 일종의 속신(俗信)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현재까지 금기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이유는 금기를 범하면 해당 신에게 노여움을 받아 벌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 때문이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전달되는 금기는 사슴과 선녀가 제시한 1)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 옷을 주어서는 안 된다. 2)말에서 내리면 안 되고 3)인간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세 가지가 있다. 하지만 나무꾼은 사슴이 제시한 금기를 지키지 않아서 아내와 자식을 잃었고, 천상에서 아내가 제시한 금기 또한 지키지 않아 말에서 떨어지고, 지상에서 아내와 자식을 그리워 하다가 수탉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금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속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종교적, 문화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금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예로부터 아기를 낳은 집에 21일 동안 출입하면 안 된다는 행동이나 표시로 전해지는 금기와 밤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는 말로 전해지는 두 가지 유형의 금기가 있다. 행동으로 전해지는 금기와 말로 전해지는 금기를 분류하여 조사한 뒤 서로 발표하게 한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흥미롭게 비교할 수 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업시간이 되리라 본다. 또한 학습자 나라에서 「선녀와 나무꾼」과 유사한 이야기 안에서 제시된 금기는 무엇인지, 한국 작품과 공통적으로 제안되는 금기가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고 금기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보상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비슷한 작품 안에서 제시된 금기에 따른 처벌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각 나라의 금기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예〉

1) 「선녀와 나무꾼」에서 제시된 금기를 찾아서 이야기해 보고 왜 그런 금기를 제시했는지 추측해 봅시다. (문화, 개인성장모형)

2) 여러분 나라에 「선녀와 나무꾼」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쓰고), 어떤 금기가 제시되었는지, 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긴 처벌과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써봅시다) (문화, 언어모형)

3) 한국인에게 들어본 금기가 있다면 이야기해 보고, 여러분 나라의 금기와 비교해 봅시다. 또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알아봅시다. (문화모형)

	행동이나 표시로 전해지는 금기	말로 전해지는 금기
한국	- 아이를 낳은 집에 21일 동안 출입하면 안 된다. - 문지방에 앉으면 그 집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 - 아기를 무겁다고 하면 아기의 살이 빠진다. - 임신했을 때 닭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살갓이 닭살처럼 된다. - 임신했을 때 상가(喪家)집에 가면 안 된다.
다른 나라	- 남의 머리를 만지거나 쓰다듬으면 안 된다. - 다른 사람에게 왼손으로 물건이나 돈을 건네주면 안 된다.	

4) 여러분 나라에서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또는 연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모형)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선물
한국	1) 애인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 - 신발(다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손수건(헤어지게 된다) 등 2) 부모님, 어른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 - 하얀색 꽃 (하얀색은 돌아가신 분에게 선물하는 꽃이다) 등 3) 친구들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

3. 동물이 지닌 상징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을 도와주는 동물로 ‘사슴¹⁰⁾’이 나오고

10) 「선녀와 나무꾼」에는 노루가 등장하기도 하고 사슴이 등장하기도 한다. 사슴과 노루는 서식지와 크기에서 차이가 나지만 사람들은 크게 구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슴: 사막, 늪, 높은 산에 주로 서식하며 몸무게는 9-815kg 정도 되며 뿔은 수컷만 난다. 노루: 산이나 읍지에 주로 서식하며 몸무게는 15-20kg으로 아주 가볍다. 여름에는 털의 색깔이 적갈색이지만 겨울에는 회색으로 변한다.) (www.alldic.daum.net 참고)

나무꾼이 지상에 있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물로 ‘말’이 등장한다. 많은 동물 중에서 왜 ‘사슴’과 ‘말’이 선택되었는지, ‘사슴’과 ‘말’은 한국인에게 어떤 상징적인 동물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슴’은 거북이, 학과 더불어 십장생¹¹⁾ 중의 하나로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영물로 전해지며, 모습이 어질고 순해 보여 사람이거나 다른 짐승에게 상처받기 쉬운 약한 짐승이지만 남에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하는 보은(報恩)의 동물이라고 한다. 또한 사슴은 군집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간처럼 위계질서를 갖추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여 의리가 있는 짐승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한국인들에게 ‘말’은 초자연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신성한 동물로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한 나라의 건국신화에서도 ‘말’은 왕의 출현을 알리는 신성한 동물로, 신통력을 지닌 동물로 인식되어 마을신앙의 대상인 신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말’은 생긴 모습에서 위엄이 느껴진다고 하여 권력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 큰 체격과 함께 빠르다는 특징으로 인해 부의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크다는 의미를 나타낸다.¹²⁾

지금까지 확인해 본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수업과 연계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예〉

1) 『선녀와 나무꾼』에서의 사슴은 은혜를 갚는 동물로 나옵니다. 한국의 설화를 읽어보면 보은의 상징으로 나오는 동물이 여럿 있는데 한국에서 ‘사슴’ 이외에 어떤 동물이 은혜를 갚는 동물로 나오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언어모형)

2) 학습자 나라에서는 어떤 동물을 보은(報恩)의 상징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동물이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갚는 동물로 나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발표해

11) 십장생은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10가지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북, 사슴, 학,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산, 내(川), 해(日), 달(月)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참고)

12) ‘말벌’, ‘말거미’ 등 ‘말’이 들어가면 크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김종대,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체계』(도서출판 다른세상, 2001), 192쪽.

봅시다. (문화, 개인성장모형)

3)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신화'에 어떤 동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동물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문화모형)

4) 한국의 '사슴'과 '말'이 학습자의 나라에서는 어떤 상징으로 제시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 개인성장모형)

5) 한국은 사람을 나쁘게 평가할 때 주로 '개'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학습자 모국에서는 어떤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 언어모형)

예) 한국: 개의 자식, 중국: 거북이의 자식

6) 한국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사물이 학습자 나라에서는 어떤 상징으로 표현되는지 한국과 비교하여 알아봅시다. (문화모형)

예) 거북, 사슴, 학,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산, 내(川), 해(日), 달(月)

4. 가족 중심과 효(孝)문화

「선녀와 나무꾼」의 내용을 읽어보면 전형적인 한국인의 사상을 알 수 있다. 나무꾼은 선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여 이를 안타까워한 시승의 도움으로 힘들게 천상으로 올라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만났다. 하지만 지상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자 선녀가 준비해 준 천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왔으나 선녀가 제시한 '인간이 만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천상에 다시 오르지 못하고 지상에서 아내와 자식을 그리워하다 수탉이 되고 말았다. 사실, 나무꾼이 금기를 어긴 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만들어준 뜨거운 음식을 거절하지 못하고 먹었기 때문이다.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부모에 대한 '효(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개인중심의 사회였다면 나무꾼은 당연히 선녀를 선택한 뒤 천상에서 편하게 살았겠지만, 개인보다는 가족중심의 사고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나무꾼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거절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사상이 중요하며 '효'가 문학작품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도 한국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는 내 가족 우선주의를 생기게 하였으며 한국인에게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제일 중요한 단위인 것이다.¹³⁾ 하지만 ‘효’가 언제나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효’는 미혼인 사람에게에는 큰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없지만 결혼한 사람에게에는 간혹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효’가 지나치게 강조되었을 경우, ‘효’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효’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문화의 갈등과 해결방안이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제시된다면 한국에 와서 가족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과 재외동포들에게 자연스러운 한국 생활 적응방법과 문화의 차이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문화교육이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주변의 나라들은 서로 비슷한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족주의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가족, 집단보다는 개인주의가 우선시되는 민족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서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화적 현상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의 변화된 사회와 옛날 문화를 비교하여 이야기한다면 더욱 포괄적인 문화 학습이 가능하리라 본다.

〈예〉

1) 부모에 대한 사랑은 나라에 따라, 종교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됩니다.¹⁴⁾ 이러한 부모에 대한 사랑을 ‘효’라고 정의하고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활 속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 개인성장모형)

2) 종교, 문화가 달라도 그 안에서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부모를 위한 자식의 마음을 언어생활인 속담, 관용어에서 찾아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언어모형)

예) 1)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핀다.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2) 효자는 앓지도 앓는다. (효성이 지극한 사람에게에는 부모에게 걱정을 줄 만한 일이 안 생긴다.)

13)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사계절, 1999), 119쪽.

14) 태국의 경우,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고 싶으면 출가해야 한다고 믿었고 아들이 승려가 되면 그 공덕이 부모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었으며

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개인성장모형)

- ① 사랑하는 남자/여자가 있지만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
- ② 결혼하여 남자/여자와 독립하여 살고 싶은데 부모님이 결혼한 뒤 함께 살기를 원한다.
- ③ 복권에 당첨되어 100만 원이 생겼다면 그 돈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4) '효'가 가족문화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문화, 개인성장모형)

- 예) 1) 긍정적인 기능: 원만한 가족생활, 화목한 가정 등
2) 부정적인 기능: 가족 간의 갈등 유발 등
3)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안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화교육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읽고 질문에 답하거나 토론, 연극하기, 대본 만들기 등의 문화 활동 중심의 학습방안에서 좀 더 나아가 이야기 속에서 한국의 가치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새로운 방법의 문화교육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선녀와 나무꾼」은 세계 보편적인 문학작품이므로 비교 문화 학습이 가능한 작품이며, 외국인 학습자는 자국의 이야기와 유사한 한국의 문학작품을 통해 거부감보다 흥미와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고급단계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어교재에 제시된 「선녀와 나무꾼」을 활용한 문화교육을 문학교육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야기 구조를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역할극, 대본 만들기 등) 중심과 언어모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주된 문화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을 느껴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교육에 활용해 보고자 문학작품 안에 제시된 문화

출가를 해야 비로소 성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양지선, 「동남아시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고향논집』 제38집(2006), 65쪽.

소재를 찾아내고 문학교육모형에 맞추어 언어모형보다 문화, 개인성장모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 표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유형을 통한 새로운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녀와 나무꾼」에서 제시되는 셋째 선녀와 날개옷을 아이 셋 낳을 때까지 보여주지 말라고 제시한 숫자 '3'의 소재에서 한국인들이 숫자 '3'을 길(吉)한 수로 생각하고 짝수보다는 홀수를 좋아하는 경향을 찾아내어 학습자들의 나라마다 문화에 따라 선호하는 숫자와 기피하는 숫자에 대한 질문유형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사슴과 선녀가 제시한 1)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옷을 주어서는 안 된다, 2)말에서 내리면 안 되고 3)인간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세 가지 금기를 통해 지키지 않을 경우 징벌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금기는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전승되면서 그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린 일종의 속신(俗信)으로 금기를 범하면 벌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깊은 믿음이 있다. 국가에 따라 종교적, 문화적 가치관에서 오는 금기도 있고 각 나라에서 지켜야 할 속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금기가 있는데 한 교실 안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의 금기 문화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문화적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 유형을 구성하였다.

셋째, 「선녀와 나무꾼」에 등장하는 여러 동물 중에서 '사슴', '말'이 한국인에게 어떤 상징적인 동물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학습자들 나라에서는 어떤 동물이 비슷한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을 좋게 평가하거나 안 좋은 평가를 할 때 빗대어 표현하는 동물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유형을 구성하였다.

넷째,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사상이 중요하고 이러한 '효'는 내 가족 우선주의를 생기게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제일 중요한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각 나라마다 종교적, 문화적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학습자 나라에서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나 행동, 그와 관련된 속담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유형을 구성하였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소재를 찾아내어 한국의 문화와 상징체계, 가치

관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유형을 활용하여 접근한다면 누구나 편하게 생각하면서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학습자라면 쉽고 흥미롭게 문화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올바른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배경지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재를 활용하여 교육을 한다면 교수자에게도 어렵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의 문화적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기에 적당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이 기존에 시행되었던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작품에서 제시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된다면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참여와 더불어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되리라 보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선희·유승금,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9권 3호, 2008, 1-20쪽.
-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 1999.
- 김영주, 「전래동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다문화 및 재외동포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80호, 2008, 97-124쪽.
- 김정은,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갈등 양상 분석」. 『한국어교육』 19권 2호, 2008, 1-38쪽.
- 김종대,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 리영순, 『동물과 수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 세계』. 서울: 훈민, 2006.
- 박영순,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 5권 1호, 1989, 43-59쪽.
-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서울: 집문당, 1993.
-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나는 고부갈등과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여성연구 논총』 21집, 2006, 55-71쪽.
- 양지선, 「동남아시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고향논집』 38집, 2006, 55-81쪽.
-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권 2호, 1999, 257-271쪽.
- 최권진,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17권 2호, 2006, 237-266쪽.
- 홍혜준,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21호, 2004, 529-555쪽.
- 황인교,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호, 2001, 409-434쪽.
- 『말하기 쉬운 한국어 9』, 성균관어학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서강한국어 4A』,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도서출판 하우, 2007.
- 『한국어 고급 1』,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경희대학교출판국, 2003.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다음사전 www.alldic.daum.net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 역할극이나 토론 등에 한정되어 있는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선녀와 나무꾼」은 광포설화로 호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의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업 방안을 제시된 질문유형을 통해 분석한 뒤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교육을 위해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에서 문화교육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찾아내었으며, 학습자에게 질문을 통해 문화교육에 접근하고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문화교육의 방안을 새로운 질문유형을 활용하여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 혼합한 표현 영역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숫자 '3'의 의미와 민속적 금기, 제시된 동물의 상징성, 가족중심의 '효'문화에 대한 소재를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소재를 찾아내어 한국의 문화와 상징체계, 가치관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유형을 활용하여 접근한다면 외국인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참여와 더불어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되리라 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투고일 2009. 10. 12.

수정일 2009. 12. 2.

게재 확정일 2009. 12. 9.

주제어(keyword) 전래동화(Fairy Tales), 문학교육(Teaching Literature), 문화교육(Teaching Culture), 민속적 금기(National Taboo), 숫자 3(The number 3)